

# 기적 중의 기적

[짧은 말씀 묵상집 (26)]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가르치기를 잘 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가르치기를 잘 하길 기원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35:34,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전서 3:2; 디모데후서 2:24).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가복음 4:33; 사도행전 2:20, 18:11).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먼저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마태복음 5:19; 로마서 2:21).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디모데전서 4:13).

## 가벼운 불평?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불평입니다"(출애굽기 16:7, 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불평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 갇혀 있어서 사방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갇혀 있어서 사방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건지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14:3-4, 현대인의 성경).

##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힘든 위기에서도 ...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힘든 일을 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제일 힘든 위기에서도 건져 주신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제일 힘든 위기에서도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접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힘든 위기에서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신명기 7:17-19; 고린도전서 10:13; 히브리서 13:8, 현대인의 성경).

## 개미보다 못한 당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장로교회의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개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협력하며 일하기 때문입니다(잠언 6:7).

## 게르솜과 엘리에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국 땅이요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입니다

(모세와 그의 아내 심보라의 장자 "게르솜"이란 이름의 의미).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차남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의미)

사탄과 그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출애굽기 18:2-4).

## 경손과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 임한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궁핍케 하시므로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참고: 신명기 8:2-3, 현대인의 성경).

## 계속 버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잡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지 않았던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짐승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계속 버텼습니다  
(출애굽기 9:2, 7, 현대인의 성경).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계속 버티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의 종살이했었던 우리를 놓아준 것을 후회하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14:5-6, 현대인의 성경).

## 공의로운 재판장은 ...

법정에서 재판장은 소송 문제를 다룰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며 안 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은 가난한 사람의 소송 문제라 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출애굽기 23:3, 6, 현대인의 성경).

## 괴로운 마음

천막 문에서 울정도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몹시 노하시므로 모세는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민수기 11:10-15,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도자 모세의 괴로운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괴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우신 짐(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게 합니다.

(2) 괴로운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기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3) 괴로운 마음은 '나 혼자'라는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4) 괴로운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 괴로운 마음은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생각하여

주님께 차라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구합니다.

(6) 괴로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 교만과 욕심은 속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인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잘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도 가담되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 체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민수기 16: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하나님의 종에게는 자신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 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7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종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3)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귀한 일로 여기지 않고 작은 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9-10절, 현대인의 성경).

(4) 그래서 그들은 한패거리가 되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5)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비옥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곳 광야에서 죽이려 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우리 왕까지 되려고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밭이나 포도원도 주지 않았소.

당신이 우리를 끝까지 속일 작정이오? ..." (13-14절, 현대인의 성경)

(6) 이들의 원망 중 모세가 자신들을 "끝까지 속일 작정이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 교만과 욕심은 속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못하기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였고 또한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투덜"졌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자기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의 비난을 들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침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민수기 12:1-3, 현대인의 성경). 겸손한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비난을 다 듣고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침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에 주님의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님의 종을 비난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요.

## 교만한 자의 수고

교만한 자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 레위기 26:19, 20, 현대인의 성경).

## 교인들은 목사와 다뤄도 목사는 ...

교인들은 목사와 다뤄도 목사는 교인들을 위하여 사탄과 그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17:2, 9).

## 교회 봉사가 "강제 노동"이 되면 아니될 텐데요 ...

위협을 느낄 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강제 노동" 같은 것으로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이 진정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지 ...?

(참고: 출애굽기 1:9-11, 현대인의 성경)

##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

교회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교인들을 선동하여 주님이 세우신 종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님의 종을 대적하고 괴롭히므로 말썽과 소란을 일으킵니다

(참고: 민수기 16:19; 예레미야 43:3; 사도행전 13:50, 14:2, 17:13, 24:5, 현대인의 성경).

## 교회 일을 잘못했을 때는 ...

교회 일을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 민수기 18:23, 현대인의 성경).

##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하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사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3:21-2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의 이름의 뜻["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구원자"(마태복음 1:21)]대로 사용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사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29-31, 현대인의 성경).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힘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15:13, 현대인의 성경).

##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 주소서"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이 네 앞으로 지나가게하고  
나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  
네가 내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18-20, 2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 그 많은 어려움들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라면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그 많은 어려움들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 신명기 8:5-6, 현대인의 성경).

## 그 말씀을 빨리 떠나 죄를 짓는다는 것은 ...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집에 돌아가면서조차도 그 말씀을 빨리 떠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사람이요 정말 고집 센 사람입니다  
(참고: 신명기 9:6, 13, 16, 현대인의 성경).

## 그 형제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큰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주실지 기대하면서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 형제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2:4-9, 현대인의 성경).

## 그것이 우리에게 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짝지어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닳이 될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34:12, 현대인의 성경).

##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19:19, 현대인의 성경).

## 그리하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성도님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5:27, 31, 현대인의 성경).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치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33절).

## 기념하며 축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집트 같은 사탄의 나라에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탄의 나라에서 나온(탈출한) 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제를 드려야 합니다(참고: 출애굽기 13:3-6, 현대인의 성경).

## 기도합니다. (1)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민수기 14:17).

## 기도합니다. (2)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참고: 민수기 14:19, 현대인의 성경).

##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서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내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5:15, 현대인의 성경).

## 기적 중의 기적

생사에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기적을 구합니다.  
그 기적이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식구를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요11장),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중생(reborn, regeneration)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첫째 부활).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Already)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Not-yet) 경험하지 못한 기적 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재림)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둘째 부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 나 같이 고집 센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

하나님께서서는 고집 센 이스라엘 백성과 잠시라도 함께 간다면  
그들을 아주 없애 버릴지도 모르기에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3, 5,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 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15-16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네 요구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 같이 고집 센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사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이 고집 센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시기에 내 요구를 다 들어주시니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족한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 나 자신이 부패해지며 아니될 텐데 ...

이 미국 땅에서 자녀를 낳고 앞으로 손자를 얻어 오래 동안 살게 될 때

나 자신이 부패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아니될 텐데 ...

(참고: 신명기 4:25, 현대인의 성경)

##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 속에서 시련을 겪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에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길 간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 전에  
나의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사  
그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1, 18:14; 잠언 3:5, 현대인의 성경).

##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답변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들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였습니다  
(출애굽기 6:6-1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 2:7; 3:11,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 나는 아버지로서 ...

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 주신 세 자녀들을 위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의 임무는 나를 돕는 일이다(참고: 민수기 3:8-9, 현대인의 성경).

## 나쁜 소문을 퍼트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여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트립니다

(잠언 3:5; 고린도후서 5:7; 민수기 13:32, 현대인의 성경).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합니다(잠언 18:8, 26:22,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민수기 14:27, 현대인의 성경).

## 나이 많은 노인을 ...

우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레위기 19:32, 현대인의 성경).

## 낙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으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민수기 32:1-12, 현대인의 성경).

##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레위기 19:16, 현대인의 성경).

### "내 귀를 뚫으소서"

종으로서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다가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자녀는 그 주인의 소유이기에 7년째에  
그 종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때에 그 남자 종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그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그의 주인에게 평생 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1-6,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종이 자기 처와 자식만 사랑해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도 사랑해서 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남편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아내와 자녀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영어 복음 성가 "Pierce my ear"(내 귀를 뚫으소서)가 생각납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내 귀를 뚫으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를 당신의 문으로 데려가십시오/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 저는 여기 머물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값을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피로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나는 결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반응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9-12).

제가 승리장로교회 부목사 시절에 딱 1년 사역한 후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께 '저는 더 이상 승리장로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

요나처럼 한국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6개월 후엔가 교회갱신 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마태복음 16장 18절인 "... 내가 ... 내교회를 세우리니 ..."

(I will build My church)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비록 나는 절대 세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사 2003년 12월 21일

다시 미국에 있는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사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제가 누구이기에 승리장로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하고 도망 나갔던 자를

'그래, 제임스야 너는 결코 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서는

지난 약 19년 동안 저와 함께하셨고 승리장로교회와 함께하시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1-2, 현대인의 성경).

##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괴로운 마음 속에서 말한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모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1:16-17, 현대인의 생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을 매우 괴로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탈진이 되기 전에, 즉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 전에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여 함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고 또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계속해서 혼자 일하다가

그 일이 버겁게 무거워 마음이 괴로울 정도까지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 "너는 내 말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1:23, 현대인의 성경).

##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모두 성막으로 나오너라"고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예언자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며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 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민수기 12:1-8,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우리를 "갑자기" 부르시사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8절, 현대인의 성경).

##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는 하는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7-8, 현대인의 성경).

##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의로운 사람의 진술을 묵살시키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8, 현대인의 성경).

**누구랑 결혼하지 않고 결혼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누구랑 결혼하지 않고 결혼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신명기 7:3, 현대인의 성경).

## **다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약속의 땅이요 진정한 가나안 땅인  
천성(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식구와 친구 등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와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고: 민수기 10:29-32, 현대인의 성경).

##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21, 현대인의 성경)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보고서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24:9-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치시므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히브리서 9:12)  
우리가 지성소의 경계선을 뚫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18).

##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의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창 17:1, 18:10, 14; 롬 4:18, 히 11:12, 현대인의 성경).

##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한다면 우리 자녀도 그/녀를 본받아 돈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34:16, 현대인의 성경).

## 동등한 대우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의 종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29; 히브리서 1:6; 2:11).

##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찬 마음?

어느 정도로 두렵고 원망스러웠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까지 했을까요?

(민수기 14:10, 현대인의 성경)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찬 마음은 어떠한 불신의 위협적인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신명기 3:22, 현대인의 성경).

## 또 다른 불평의 이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하고 떠들어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을까요?

물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평의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운데 계심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참고: 출애굽기 17:3, 7-8, 현대인의 성경)

##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또 다시 고집스러워지고 또 다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시 불순종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8:29,33, 아가페 쉬운 성경).

## "똑같은 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듯이  
"똑같은 짓"을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 가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민수기 32:14, 현대인의 성경).

## 마음에 원해서 ...

마음에 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35:5, 21, 29, 현대인의 성경).

## 마음으로라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은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17,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형제와 맺힌 것을 풀지 않고 있으니  
마음으로라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이 광야와 같은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1:29-32; 시편 90:10, 현대인의 성경).

## 만일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

만일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로 인한 교인들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민수기 32:15, 현대인의 성경).

## 만일 우리가 돈을 우상화하여 섬기면 ...

만일 우리가 돈을 우상화하여 섬기면 그 돈이 우리에게 덮어 될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23:33, 현대인의 성경).

## 만일 주일에 일을 하지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

만일 주일에 일을 하지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6일 동안 일하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풍족하게 하시사

7일째인 안식일(주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참고: 레위기 25:20-21, 현대인의 성경).

## 말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지 않은 이집트 왕 바로의 말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출애굽기 4:22-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므로

우리를 이집트와 같은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 말한 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

"먼저" 가정의 "의무"를 다한 후 (또는 다하면서)

교회의 의무를 솔선수범하여 다하겠다고 말한 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민수기 32:16-23, 현대인의 성경).

## 매우 경계해야 할 것!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게 되는 것입니다(참고: 출애굽기 9:12, 현대인의 성경).

## 매우 심각한 범죄?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모조리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궁핍함을 경험할 때에는  
충분히 원망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망의 내용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죽을 뻔했습니다'라고 원망의 대상인 주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주님이 세우시고 보낸 종을 원망한 것은  
곧 주님을 원망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 죽었더라면 죽을 뻔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2-4, 8,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14:6).

##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서 재산이 많아질 때  
우리는 교만 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8:11-14, 현대인의 성경).

##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라고 독촉하는 불신자 직장 상관의 입장에서는 ...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라고 독촉하는 불신자 직장 상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요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겨를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더욱더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5:7-19, 현대인의 성경).

##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4:31, 현대인의 성경).

## "먼저" 감당해야 할 "의무"는 ...

많은 가축이 있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에게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여  
요새화된 안전한 곳에 살도록 한 후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편인 정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선두에서 싸우고 그들이 그 곳에서 땅에 분배 받을 때까지는  
자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민수기 32:1-18).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먼저 가정의 의무를 감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20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는 "먼저" 가정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솔선수범하여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모두 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여 돈을 우상화 하게 하여 섬기게 만들고  
유혹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참고: 민수기 25:17-18; 마태복음 6:24, 현대인의 성경).

## 모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서야 ...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 모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서야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으므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신명기 4:29-30, 현대인의 성경).

## 목사는 ...

목사는 교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18:19-20, 현대인의 성경).

## 목사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거라. 네가 갈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출애굽기 17:5-6, 현대인의 성경).  
기도하는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하되 목사는 불평하며 따르는 교인들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사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사 교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38, 현대인의 성경).

## 목사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19:25, 현대인의 성경).

## 목사님들은 헌금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룩한 헌금을 함부로 다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레위기 22:1, 현대인의 성경).

##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20:19, 현대인의 성경).

## 목사님이 창녀와 결혼해도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1장 13-15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지파 중의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그를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 짓을 하고 있다"

(호세아 1:2, 현대인의 성경).

## 무당

무당을 찾아다님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레위기 19:31, 현대인의 성경).

## 무엇이 낫습니까?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는 고기와 빵이 낫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먹는게 낫습니까?

(참고: 출애굽기 16:3-4, 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에서 우리 욕심의 배를 배불리 채우는 재물보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신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 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게 훨씬 낫습니다!

##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이집트와 같은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종살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요?

(출애굽기 14:12, 현대인의 성경).

## 무죄한 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허위 문책을 해서 죄 없는 자는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7, 현대인의 성경).

## 물건을 사고 팔 때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9:35, 현대인의 성경).

## 믿음으로 감사하는 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들먹이면서  
현재를 불평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쁜 영향을 받아 함께 불평하기보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선한 영향을 받아 함께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참고: 민수기 11:4-6, 현대인의 성경).

##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 (1)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26-31; 고린도후서 5:7, 현대인의 성경).

##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 (2)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고: 민수기 14:9, 현대인의 성경).

##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고 듣는 데로 살면 ...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고 듣는 데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기 보다 불신앙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여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신명기 1:26-28; 고린도후서 5:7; 야고보서 1:19, 현대인의 성경).

## 믿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지 석 달 밖에 안된 아들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  
그 상자를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3, 현대인의 성경).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두었던 모세의 부모(히브리서 11:23, 현대인의 성경)는

모세를 믿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를 멀리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 믿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

믿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2:2-6).

##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을 기다려야 ...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시내 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섭게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는데  
모세는 구름이 뒤덮인 그 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15-18,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종은 겸손히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예레미야 23:19)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지만 불신의 열매는 의문이요 의심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였고 두 번째 반응은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였습니다  
(출애굽기 3:11, 13, 현대인의 성경).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의식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반응은 다른 사람들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 의식은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 이러한 가상적인 질문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12절)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던지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지만 불신의 열매는 의문이요 의심이요 불순종입니다.

## 믿지 않으면 믿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도록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4:1-9, 현대인의 성경).

##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며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친  
거짓 선지자 발람도 만나시사 그로 하여금 발락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므로  
발락이 원하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씩이나 축복만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4, 5, 11, 16, 20, 25, 24:10; 시편 37:22; 베드로후서 2:15;  
요한계시록 2:14, 현대인의 성경).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고: 에베소서 1:3, 현대인의 성경).

## 반드시 진실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

모세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1)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2)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3)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5:22-23, 현대인의 성경).

(1)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일까요?

(2) 왜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3)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 고통속에서 건져 주시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왜?"라는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특권입니다.

반드시 진실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 방종한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데 ...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방종한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민수기 15:39-40, 현대인의 성경).

##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신명기 6:2-3, 현대인의 성경).

##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지팡이 하나로도 ...

홍해를 육지가 되게 하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지팡이 하나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14:16; 17:6, 9-11).

## 복을 받고자 하기보다 사랑하기에 ...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그리 행하는 것입니다  
(참고: 신명기 6:5, 17, 현대인의 성경).

## 복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

나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면서 원망하기보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므로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참고: 민수기 14:2-3; 잠언 3:5-6, 현대인의 성경).

## 봉사자가 아니라 우선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내시사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였습니다(출애굽기 3:1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봉사자가 아니라 우선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절에는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심브라와 부아에게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을 조산할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 두어라"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16,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니까

바로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 주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20-22절, 현대인의 성경).

바로 이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는 모세가 아주 예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왔었는데(2:2,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두었으며

이집트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23, 현대인의 성경).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여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12; 에베소서 6:1-3, 현대인의 성경).

##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날 동안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신물이 나도록 먹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민수기 11:18-2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5, 7,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우리 지식을 의지하면 모세나 빌립처럼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잠언 3:5-6,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서는 모세 시대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물이 나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 것이요,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은 ...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은

주님을 거절하면서 후회하면서 살 위험이 참 많습니다

(참고: 민수기 11:20, 현대인의 성경).

## 불신앙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에 ...

불신앙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때를 놓쳐

자기 때에 자기 마음대로 으스대면서 행동을 합니다

(참고: 신명기 1:41-43, 현대인의 성경; 잠언 3:5).

##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9:20, 21, 현대인의 성경).

## 불신은 악평하게 만들고, 악평은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36-37절).

불신은 악평하게 만들고, 악평은 원망하게 만듭니다.

악평과 원망의 책임과 결과가 있습니다.

## 불평과 감사의 차이?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17:3, 7, 현대인의 성경).

##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궁핍함 속에서 다투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3, 7, 현대인의 성경).

즉,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 불평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들먹이면서 현재 상황을 불평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 민수기 11:4-6, 현대인의 성경).

## 사람들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지팡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잘 것 없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17,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 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14:16, 21-2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지팡이"와 같은  
우리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해가운데 원망하고 불명하게 됩니다  
(참고: 신명기 1:26-28, 현대인의 성경).

##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신명기 1:20-21, 현대인의 성경).

## 사람을 두려워하면 ...?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는 지도자는  
소송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되  
빈부 귀천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16-17,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빈부귀천을 가리면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반면에  
히브리 산파인 심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12, 15, 1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 사방에 분명한 경계선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방에 분명한 경계선을 정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19:23, 현대인의 성경).

##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출애굽기 20:13).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요한일서 3:15, 현대인의 성경).

##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이 없는 ...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이 없는 양과 같이 된 교인들이 되면 아니될 텐데요 ...

(참고: 민수기 27:17, 현대인의 성경)

##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출애굽기 20:14).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마태복음 5:28, 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누가복음 16:18, 현대인의 성경).

## 성경은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출애굽기 20:17, 현대인의 성경).

또한 성경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신명기 5: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21절).

## 성경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출애굽기 20:16).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5: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신명기 19:18).

##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출애굽기 20:15).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십일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말라기 3:8, 현대인의 성경).

##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레위기 19:30, 현대인의 성경).

##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출애굽기 21:10, 현대인의 성경).

## 속히 망할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속히 부패해져서 속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속히 망할 것입니다(참고: 신명기 4:25-26, 현대인의 성경).

## 쉬운 줄로 생각되는 가능하게 보이는 일만 행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지만  
불신앙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 쉬운 줄로 생각되는 가능하게 보이는 일만 행합니다  
(참고: 신명기 1:41,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17:1, 18:14).

## 아무도 주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충실히 따르든지 아니면 돈을 우상화해서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주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4:3-4; 마태복음 6:24, 현대인의 성경).

## 아무리 능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큰 문제를 당면했다 할지라도 ...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능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큰 문제를 당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큰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명기 9:1-3, 고린도전서 10:13, 현대인의 성경).

## 아무리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고 해도 ...?

아무리 충분한 사례를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참고: 민수기 22:17-18, 현대인의 성경)

## "아직도"

이집트 왕 바로는 이집트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광경을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출애굽기 9:24, 3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제 인생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식의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 안식일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

안식일에 주인이신 하나님(마태복음 12:8)께서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8-11, 현대인의 성경).

**약속대로 천 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천 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신명기 7:9, 현대인의 성경).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고생하는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인도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당한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고생하는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인도하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3:16-17, 현대인의 성경).

**어떠한 힘들고 마음 아픈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

어떠한 힘들고 마음 아픈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고난) 중에서도 즐거워(기뻐)해야 합니다(참고: 로마서 1:16, 5:3).

## 어쩌면 우리에게 임한 많은 어려움들은 ...

어쩌면 우리에게 임한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고: 신명기 8:2, 현대인의 성경).

## 언제까지 ...?

혹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언제까지 나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거절할 것인지 ...  
(참고: 출애굽기 10:3, 4, 현대인의 성경).

##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민수기 14:11, 현대인의 성경).

## 언제까지 불순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6일 동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을 거두겠지만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없을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하늘의 양식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작정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26-28, 3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언제까지 걱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안식일에 편히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몸과 마음을 혹사할 것입니까?

## 여러모로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

저는 허만 둔한 자가 아니라 머리도 둔한 자요 마음도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4:10,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2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찌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그녀는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고: 민수기 5:27, 현대인의 성경).

## 여전히 버티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버티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칠 배나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참고: 레위기 26:21, 현대인의 성경).

##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는 죄?

우리는 재앙적인 재난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금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는 죄를 더 이상 하나님께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출애굽기 9:34-35, 현대인의 성경).

## 영적 음행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단 사람들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영적 음행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참고: 민수기 25:1-3,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교회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공의로운 가정과 교회입니다 (참고: 신명기 4:7-8).

## 오해를 하면

불신자 직장 상관이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한다고 오해를 하면 우리의 작업량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면서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라고 강요하고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5:8, 11, 13, 16, 현대인의 성경).

## 완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서는 마음이 변하여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는 완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14:4, 5, 8, 현대인의 성경).

### 왜 그들이 약속을 먼저 다 지키는 것을 확인한 후 길르앗 땅을 주게 했을까요?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지 않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이행을 다 한 후에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길르앗 땅을 주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당을 분배 받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32:29-3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믿고(신뢰하고) 그들에게 먼저 길르앗 땅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하지 않고 왜 그들이 약속을 먼저 다 지키는 것을 확인한 후 길르앗 땅을 주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원하는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그들이 한 약속을 지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먼저 의무를 감당한 후에야 그들이 원하는 길르앗 땅을 주게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생각이 맞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마태복음 16:18)이 먼저 성취되는 과정에 온 교우들이 함께 각자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외국인?

우리는 우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 동족같이 여기며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레위기 19:33-34, 현대인의 성경).

##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의 심정을 알고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9, 현대인의 성경).

##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참고: 민수기 20:12).

##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큰 죄를 교인들에게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큰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지금 교인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이러 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영혼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은 거짓 목사들이나 이단들의 표적(target)이 되어  
이리의 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참고: 민수기 25:4, 현대인의 성경).

## 우리 목사님들로 인해 퍼지고 있는 영적 전염병?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범하고 있는 큰 죄로 인하여  
어떠한 영적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까?  
(참고: 민수기 25:1-9, 현대인의 성경)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영적 전염병이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빌립보서 3:8)  
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 전염병이 심하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호세아 4:6)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러한 목사님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7절)  
지금 예수님께서서 예언하신 대로 악이 점점 더하므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영적 전염병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24:12, 현대인의 성경).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 우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이 여겨주시사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을 좇아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레위기 18:30, 현대인의 성경).

##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16:9-10, 현대인의 성경).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는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원망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때에 ...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으십니다  
(민수기 22:32,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주님께서는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우리가 그 길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2:6,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겪은 고생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겪은 고생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에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지만 에돔 왕은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하고 거절했습니다 (민수기 20:14-2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겪은 고생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일을 부탁했는데 그가 우리의 그 작은 부탁도 거절을 한다면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할 때에 ...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시므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참고: 신명기 8:16-18).

## 우리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이 우리 말을 들으면 어찌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이 우리 말을 들으면 어찌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데 상대방이 우리 말을 안 듣는게 더 낫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6:12, 30, 현대인의 성경).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우리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참고: 신명기 1:25-26,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죄를 거듭 짓는 것은 ...

우리가 죄를 거듭 짓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20:20).

##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32:30,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그대로 전해야 하며,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3, 7,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소수를 따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23:2; 시편 37:27; 로마서 12:9,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7:21,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이집트와 같은 사탄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29:45-46,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참고: 신명기 4:10).

## 우리는 이 천국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늘 나라의 계명을 배웠습니다  
(참고: 신명기 4:5, 현대인의 성경). 그 천국 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주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마태복음 22:37, 3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 천국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신명기 4:6).

그리할 때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점진적으로 천국화 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민수기 22:1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29,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받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받쳐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34:26, 현대인의 성경).

결코 우리는 더럽고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받쳐서는 아니 됩니다

(말라기 1:7-8,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로마서 4:21).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였습니다(출애굽기 3:21, 현대인의 성경).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은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습니다(12:3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로마서 4:21).

##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여 하나님에게 인도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므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4-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이사야 43:4).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9,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헛된 소문과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소문과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1; 잠언 26:22, 현대인의 성경).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더욱 널리 퍼트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15,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8, 현대인의 성경).

## 우리도 돈을 우상화 할 위험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을 섬기는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면  
그들이 초대할 때 우리도 돈을 우상화 할 위험이 많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34:15, 현대인의 성경).

## 우리도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도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2:7,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합니다  
(참고: 레위기 20:24, 26,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구원하여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큰 능력과 심판으로 구원하여 해방시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6:6-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이집트와 같은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큰 능력과 심판으로 구원하여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괴롭힘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케하시사  
우리를 괴롭히며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1:12,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출애굽기 23:4-5,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멩에를 꺾어 버리고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13,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32:1; 시편 48:14,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신명기 7:8; 요한일서 4:8, 16, 19, 현대인의 성경).

##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충실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참고: 신명기6:24-25, 현대인의 성경).

##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참고: 민수기 18:7, 현대인의 성경).

##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사람으로 인해 ...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언제까지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지 ...

(참고: 출애굽기 10:7, 현대인의 성경)

## 우리의 강박한 마음도 ...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19-20).

그 정도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했습니다

(4:21; 7:3, 13, 22; 8:19; 9:12, 35; 10:20, 27; 11:10; 13:15; 14:4, 8).

우리의 강박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드시사

여러 면으로 우리를 사랑의 매로 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예레미야 23:29)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부서트려 주시사 부드럽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22:19; 에스겔 11:19; 36:26).

##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멩에를 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도 꺾으십니다

(레위기 26:13, 19, 현대인의 성경).

##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 응답?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3, 현대인의 성경).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말씀하셨을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모호한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본 자였습니다(7-8절,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강 저편에 좋은 땅과 아름다운 산간지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5-26,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모세가 므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높이 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0:12, 24,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자아 성찰하며 자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 민수기 22:22-25, 현대인의 성경).

## 우리의 생활을 괴롭히면 괴롭힐 수록 ...

우리의 생활을 괴롭히면 괴롭힐 수록

우리는 더 많이 번성하며 더 막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하지 않나요?

(참고: 출애굽기 1:7, 11-13, 현대인의 성경)

## 우리의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큰 능력과 힘으로

사탄의 나라와 죄의 종 노릇하던 삶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신명기 9:26-27, 29, 현대인의 성경).

##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된 강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출애굽기 2:23-25, 현대인의 성경).

복음서가 "주만 바라볼찌라"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취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찌라."

## 우물가에서의 만남들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일곱 딸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르우엘의 딸 심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5-21, 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우물가에서 리브가와와의 만남을 갖게 되어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24:11-6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6-42,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물가에서 시작된 것을 생각할 때

복음 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이 생각납니다:

(1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2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리

(후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 원망하는 사람들은 ...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자기들이 보기에 낫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 민수기 14:2-4, 현대인의 성경).

## 원망한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불신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말하되 나쁜 소문까지 퍼트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3:32-33, 14:1-2, 26:65, 현대인의 성경).

## 위기가 접근해 올 때

위기가 접근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14:10-12, 현대인의 성경; 시편 121).

## 유산이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

우리에게 유산이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재산이며 유산이심을 알아야 합니다(참고: 민수기 18:20, 현대인의 성경).

## 유익한 양심의 고통과 수치심?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양심의 고통과 수치심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참고: 민수기 12:10-14).

##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

만일 내가 그/녀와 결혼하게 되거나 또한 내 자녀가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  
그/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생각되면 ...?  
(참고: 신명기 7:3-4, 현대인의 성경)

**육신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양심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문둥병이라 생각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이지만 겸손하며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यो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비난했는데  
왜 미리암만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왜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을 것일까요?  
아론은 자기 누이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 온 몸이 하얗게 된 것을 보고서야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었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게.  
제발 누님이 모태에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나온 아기처럼 되지 않게 해 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누님을 고쳐 주소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2:1-13,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흥미로운 점은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아론은 자신의 누님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온 몸이 하얗게 된 것을 보고  
양심에 고통을 느껴서 자신과 누님이 어리석은 일(모세를 비난한 일)을 한 것을 깨닫고  
잘못을 용서해 주길 모세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양심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문둥병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1:20).

## 이 4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롬 8:31)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38-39절)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29-30절)과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37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37절).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 A.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립보서 1:21).

#### 1. “이는 내게 …”(빌2:21상):

- a.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20절).

#### 2. “…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1절중):

- a.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 3. “…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1:21하):

- a. (22-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 B. (디모데후서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 C. (마태복음 25:21상)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참고: 민수기 32:24, 현대인의 성경).

##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신명기 5:24-26, 현대인의 성경).

##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면 ...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면 우리는 다시 고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8:15, 아가페 쉬운 성경).

## 자기 자신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데로 믿고 또한 자기의 느낌을 믿습니다  
(참고: 민수기 13:16, 31-33; 잠언 3:5, 현대인의 성경).

##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신명기 1:39, 현대인의 성경).

## 잘 듣고 지켜야 하는데 ...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지키되  
그 말씀에서 무엇을 더 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4:2, 현대인의 성경).

## 장인에게 다 말했습니다.

사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출애굽기 18:8-10).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장인 어르신께서 살아생전에 피닉스, 애리조나 병원에 수술 후 입원해 계셨을 때 그 병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참고: 시편 63:2)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린 후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장인 어르신을 향한 마음을

다 말(고백)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15, 현대인의 성경).

## 저는 본래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기피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기피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4:10-12, 현대인의 성경).

## 전심 전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

전심 전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참고: 신명기 1:36, 38, 현대인의 성경).

## 절대 복종할 믿음이 없기에 ...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믿음이 없이  
치명적인 재앙으로 인해 계속 피해를 보므로 하는 표면적인 순종은  
하는 수없이 마지 못해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10장, 현대인의 성경).

## 점

점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참고: 레위기 19:26, 현대인의 성경).

###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으므로 우리는 속량, 즉 죄 사함을 받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민수기 19:19-20; 요한복음 1:36; 에베소서 1:7; 골로새서 1:14; 히브리서 1:3, 9:22).

### 정말 고집 센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고집 센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참고: 신명기 9:6-7, 12-13, 현대인의 성경).

## '제가 누구이기에 ....'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사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출애굽기 3:10-11, 현대인의 성경).

모세의 입장에선 자기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는지

충분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1987년 5월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고 김영익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요한복음 6장 1-15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저를 부르셨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비록 저는 남자만 5,000명에 비하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밖에 안되는 인생이지만

그 소년처럼 제가 주님께 이 모습 그대로 받쳐서 제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충분히 기적을 이루실 줄 믿게 하시사 헌신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모세처럼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남자만 5,000명에 비하며 심히 보잘 것 없는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 등등 의문과 질문을 충분히 했었을 것입니다.

## 죄를 지었다면 ...

죄를 지었다면 쓰라린 고통을 느껴야 할 텐데 ...

(참고: 민수기 5:24, 현대인의 성경)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길 ...

주님이 보시기에 승리장로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길 기원합니다(참고: 민수기 24:5).

### 주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막으실 때에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여 주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34,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길을 열어 주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참고: 사도행전 16:9-10).

### 주님께서 예비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동안

줄곧 우리를 보호하여 주님께서 예비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23:20, 현대인의 성경).

##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을 완성하였고,  
모세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39:42, 40:16, 19, 21,23, 25, 27, 29, 32,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몸 된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함께 행해야 합니다.

##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만 말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참고: 민수기 22:20,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의 일에 필요한 재능과 지혜를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에 필요한 재능과 지혜를 주셨을 때  
우리의 책임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기꺼이 행해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36:1-2,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의 종과 다투는 것은 ...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2, 7).

## 주님의 종의 주님을 일을 할 때 ...

주님의 종의 주님을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참고: 민수기 16:28, 현대인의 성경).

## 지금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목적?

지난날에 우리가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목적은  
우리 마음 판(심비)에 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신명기 5:22, 현대인의 성경).

## 지도자는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는 자들을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지  
타락하고 고집 센 쫓는 자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하여 큰 죄에 빠지게 하므로  
원수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참고: 출애굽기 32:21-25).

## 지도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인 수가 현재보다 몇 배나 더 많게 하셨을 때  
우리는 지혜 있고 지식이 풍부하며 매사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지도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1:10-15, 현대인의 성경).

## 지혜와 지식이 있는 주님 중심된 가정의 모든 식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주님 중심된 가정의 모든 식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의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참고: 신명기 4:5-6; 마태복음 22:37, 39, 현대인의 성경).

## 직장 상관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되게 하여

그들에게 자기들을 죽일 구실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21, 현대인의 성경).

교회 목사님으로 인해 우리가 직장 상관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충분히 그 목사님을 원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진정한 믿음 (True faith)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믿음입니다(빌립보서 1:27).

True faith suffers for Christ's sake (Philippians 1:27).

## 진정한 회개? 거짓된 회개?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참고: 민수기 14:39-45).

##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20:3-6, 현대인의 성경).

## 충분히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14:8, 10, 현대인의 성경).

## 큰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

주님의 종들은 큰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입니다'라는 결심과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혹시 입술로만 그리 말하고 마음 속으로 큰 사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참고: 민수기 24:12, 현대인의 성경).

## 타락한 기독교인?

타락한 기독교인은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게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신을 만들어 그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난잡하게 뛰놀니다

(참고: 출애굽기 32:1-7, 현대인의 성경; 사사기 17:6, 21:25).

## 타락한 기독교인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고집 센 타락한 기독교인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32:9-12, 현대인의 성경).

##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아내(남편)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신명기 5:21, 현대인의 성경).

## "탐욕의 무덤"

과하게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탐욕의 무덤"에 매장될 것입니다  
(참고: 민수기 11:34, 현대인의 성경).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  
우리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 우리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4:9,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8:21).

##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사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신명기 7:6-7,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많은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셨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기름지고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7-10,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어제도 암투병중인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딸이 암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투병중인 심수는 사모님을 위해서두요.

##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직접 주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24:12,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6:4-7, 현대인의 성경).  
가르침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고용주에게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일하여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고용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5:4-5, 13,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교인수가 많아진 것을 교회 일(봉사)로 컨트롤하려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은 교회 일로 무겁게 하여 계속 고달프게 일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참고: 출애굽기 5:4-9,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당신을 바라보시며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참고: 민수기 6:23-26,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수 없이 시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민수기 14:22-23,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35:31,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거나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신명기 9:4-5,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에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합니다(출애굽기 14:13-14,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5:7).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하고 고집이 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신명기 9:5-8,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허가 둔하여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사람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말하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4:12, 15,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 신명기 5:27-29,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우리들을 이기십니다  
(참고: 출애굽기 18:11).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신명기 5:10, 현대인의 성경).  
이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딜런, 예리, 예은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베푸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2, 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은 사랑을 천 대까지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천 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 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실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사 대까지 벌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6-7,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두 반응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1) "내가 누구이기에"와 (2) '하나님은 누구시기에'입니다(출애굽기 3:11, 13).

이 두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1)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14절, 현대인의 성경)]이시고

(2) 모세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입니다.

모세나 우리는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사 "가라"(9절)고 명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9-20).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 신명기 9:18, 요한복음 3:16, 로마서 8:32,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고 ...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하자

하나님께서서는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대변자가 되게 하시사

그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10, 13-1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해 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불허주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그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고: 민수기 14:31-34,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습니다(레위기 25:17).

##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여 행할 때의 차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두었던 것(히브리서 11:23, 현대인의 성경)은 탄로가 나지 않았지만,  
장성한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한 이집트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죽여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린 것은 탄로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2:11-14,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감추인바가 되지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우리 힘으로 행할 때에는 감추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 내시는 것 같습니다.

##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므로 지도자 모세와 다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나에게 돌질할 것입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궁핍함 속에서 다툼과 원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7:1-6,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겪은 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도 거절을 당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생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민수기 21:1-5,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탄과 죄와 세상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6:12-13,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8:19, 아가페 쉬운 성경).

##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습관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습관을 갖자

(참고: 출애굽기 28:30,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타락?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밤낮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 판을 받는 동안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벌써 저버리고 자기들의 섬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9:9-12,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요즘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사모하는 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벌써 저버리고  
우리들의 섬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레위기 10:10-11,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23:21-22,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때

매일 나가서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두 배를 거두어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2-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 믿음이 없이는 통과(pass)할 수 없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면서

광야에서 모조리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나가서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을 거둔다는 것은

겸손함뿐만 아니라 엄청난 절제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두 배를 거두어 예비했어야 했는데

믿음으로 7일째 되는 날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1-5일째 되는 날에도 두 배를 거두어 들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한 7일째 되는 날에도 6일 동안 했던 것처럼

나가서 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거두어 들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하겠다.

그들이 너희 소식을 듣고 떨며 불안해할 것이다"(신명기 2:25, 현대인의 성경).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해주시사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하시사

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떨며 불안해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9).

## 하나님의 어린양

누구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12:7,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1:29; 사도행전 16:31; 골로새서 1:14).

##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고집 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34:9,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1)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석 달 밖에 되지 않은 아기 모세는  
자기 스스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건져줘야만 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그 속에 들어있었던 아기가 울자 그를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2-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이집트 왕 바로(1:22, 현대인의 성경)의 딸을 통해 아기 모세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고,  
그의 딸은 그 남자 아이들 중 딱 한 사람 모세를 건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2)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떠나보낸 모세의 어머니는  
결국에 가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샅을 받으면서  
모세를 데려다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9, 현대인의 성경).  
죽을 수도 있었던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해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샅까지 받으면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는 ...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정하고  
그 경계선을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19:10, 1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 경솔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5:1-2,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길 기원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4:17, 20,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에 ...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5:2, 현대인의 성경).

##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

진정한 만나가 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요한복음 6:33, 35, 현대인의 성경) 한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입맛을 잃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것들을 다시 좀 맛보았으면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은(민수기 11:4-6, 현대인의 성경)  
아직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빌립보서 4:11, 13, 현대인의 성경).

##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품꾼의 삯을 그 날로 지불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출애굽기 19:13, 현대인의 성경).

## 학대받기 보다 대접받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단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고 있는 듯한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대를 받기보다 대접을 더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참고: 출애굽기 1:12)

##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실히 준수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고: 신명기 7:12-13; 에베소서 1:3; 빌립보서 2:8, 현대인의 성경).

## 함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말 대로 행하셨습니다(민수기 14:2, 27-29, 현대인의 성경).

##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날을 기념하고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참고: 출애굽기 13:9, 현대인의 성경).

## 항상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시오(출애굽기 19:7-9,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 4절).

## 허위 증언, 허위 진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악한 사람을 도와 허위 증언하지 말며 또한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1-2, 현대인의 성경).

## 호감, 위대한 인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셨고 또한 바로 왕의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2-3, 현대인의 성경).

아니, 어떻게 자기와 자기의 백성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지쳐 버리고 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출애굽기 18:17-18, 22, 현대인의 성경).

## 후세대 지도자에게 ...

후세대 지도자에게 임무를 맡기고 그를 격려하며 굳세게 하고 싶습니다  
(참고: 신명기 3:28, 현대인의 성경).

##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12, 현대인의 성경).